

날짜		이름	
----	--	----	--

YM고전읽기 논술 능력고사(중고등)

[문제1] 제시문 (가)의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을 제시문 (나)~(마)에서 찾아 설명해보자. (800자 내외)

[문제2] 제시문 (가)와 (바)를 모두 활용하여, 제시문 (사)에 나온 현상에 대해 비판해보자. (800자 내외)

(가)

에드워드 사이드의 1978년 저작 『오리엔탈리즘』은 서구가 동양을 바라보는 방식에 내재한 거대한 편견의 체계를 해부한 책이다. 이 개념의 어원은 라틴어 '오리엔스(oriens)'에서 유래하며, 이는 '해가 뜨는 방향' 즉 동쪽을 의미한다. 본래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의 언어, 문학, 문화를 연구하는 학술적 태도를 일컫는 가치중립적인 용어였으나, 사이드는 이를 '서구적 경험에 근거하여 동양을 지배하고 재구성하며 억압하기 위한 서구의 스타일'이자 정치적 담론으로 재정의한다. 즉, 오리엔탈리즘은 객관적인 연구 결과가 아니라, 서구가 자신들을 합리적이고 문명화된 주체로 세우기 위해 동양을 비합리적이고 정체된 '타자'로 규정하며 만들어낸 이데올로기적 허구라는 것이다.

역사 속에서 오리엔탈리즘적 시선은 제국주의 팽창기에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1798년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프랑스는 군대와 함께 수많은 학자를 동행시켜 이집트의 유물을 수집하고 목록화했는데, 이는 순수한 학문적 열정이라기보다 동양을 '지식의 체계' 안에 가둠으로써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지배하려는 권력의지였다. 또한 19세기 서구의 문학과 예술은 동양을 신비롭고 이국적이지만 동시에 게으르고 관능적이며, 스스로를 통치할 능력이 없는 수동적인 공간으로 묘사했다. 이러한 '타자화'를 통해 서구인들은 자신들의 식민 지배를 '야만인들을 문명화하려는 고귀한 사명'으로 정당화하는 논리적 기반을 마련했다.

오늘날 오리엔탈리즘은 단순히 '동양'에 국한되지 않고, 권력을 가진 주체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자신의 입맛대로 규정하는 모든 형태의 '타자화'와 '본질주의적 편견'을 비판하는 용어로 확장됐다. 특히 최근에는 서구뿐만 아니라 동양인 스스로가 서구의 시선을 내면화하여 자신의 문화를 상품화하거나 스스로를 열등하게 여기는

'내면화된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성찰로까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나)

정오가 되자 안내인이 출발 신호를 보냈다. 주변은 어느새 황량한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다. 울창한 밀림이 끝나고 덩불과 키 작은 종려나무들이 나타나더니, 다시 바짝 마른 관목들이 비죽비죽 서 있고, 커다란 화성암 덩어리들이 군데군데 보이는 넓고 메마른 황야가 펼쳐진 것이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이곳 분델칸드 고지에는 광신적인 힌두교도들이 살고 있었다. 이들은 힌두교에서도 가장 끔찍한 관습을 지켜 오고 있는 자들이었는데, 영국 정부도 인도 영주들의 영향권 아래 있는 이 영역에서 권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중략)...

안내인은 나무에 묶인 코끼리를 풀어 잡목림 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러고는 여행자들에게 절대로 코끼리에서 내려오지 말라고 일렷다. 그리고 도망쳐야 할 것 같으면 자신도 재빨리 코끼리 위에 올라탈 태세를 취했다. 조화롭지 못한 사람 소리와 악기 소리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단조로운 노랫소리가 북소리, 자바라 소리와 섞여 들려왔다. 곧 나무 밑으로 행렬의 선두가 나타났다. 포그 씨 일행이 있는 곳에서 50걸음쯤 떨어진 곳이었다. 종교 의식을 행하고 있는 기묘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뭇가지들 사이로 아주 잘 보였다.

번쩍이는 장식이 달린 긴 옷을 입고 높은 모자를 쓴 승려들이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냈고, 그들을 둘러싸고 남녀노소가 따라오면서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노래를 읊조렸다. 그들의 노랫소리가 규칙적으로 끊길 때마다 북소리와 자바라 소리가 들렸다. 그들 뒤로 이번에는 흉측한 모양의 신상을 실은 수레 한 대가 나타났다. 커다란 수레바퀴의 바퀴살과 테두리에는 많은 뱀들이 뒤얹혀 있는 모양이 장식되어 있고, 수레를 끄는 두 마리의 뿔소도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다. 팔이 네 개나 달린 신상은 온몸이 짙은 빨간색이었다.

한 무리의 늙은 힌두교도들이 신상을 둘러싸고 소란을 피우며 제멋대로 날뛰었고, 경련을 일으키듯 몸까지 비틀고 있었다. 황토색 줄무늬를 그린 몸에는 온통 십자형의 칼자국이 나 있고, 거기서 핏방울이 배어 나오고 있었다. 이 어리석은 광신자들은 힌두교의 중요한 의식을 행할 때면, 극락에 갈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아직도 신상이 실린 수레의 바퀴 밑으로 뛰어들곤 했다.

그들 뒤로 동양적인 느낌의 화려한 옷을 차려입은 브라만 승려 몇 명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여인 한 명을 끌고 오고 있었다.

“사티로군”

파르시가 그렇다는 뜻으로 머리를 끄덕이며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댔다.

“사티가 뭘니까?”

여단장이 대답했다.

“사티란 인간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제물이 되는 거지요. 당신이 조금 전에 보았던 여인은 내일 첫새벽에 불태워질 겁니다.”

“아니, 그런 야만적인 관습이 아직도 인도 땅에 남아 있단 말입니까? 영국인들이 없앨 수는 없었나요?”

“대부분의 인도 땅에서는 이제 그런 희생제를 드리지 않아요. 하지만 미개한 지역까지는 우리 힘이 미치지 못하지요. 주로 분델칸드 지역이 그래요. 그래서 빈디아 산맥의 뒤편 북쪽 지역은 끊임없이 살인과 약탈의 무대가 되고 있어요.”

안내인은 희생자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여자는 파르시 출신의 뛰어난 미모를 가진 여자로 뭄바이에서 철저한 영국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태도나 학식에서 유럽 여자나 다름없었다.

(다)

1950년 6월 한국 전쟁이 시작되고 3주가 지나서 <뉴욕타임스>의 존경받는 군사 부문 편집자 헨스 볼드윈이 내린 판단을 살펴보자.

우리는 한국에서 야만인의 군대에 맞서 싸우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칭기즈칸의 대군만큼이나 잘 훈련되어 있고 잔인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신들이 수행하는 전쟁의 전술에 능숙한 야만인이다. 그들은 나치의 전격전을 흉내내고 있으며 무섭고 두려운 온갖 무기를 사용한다.

볼드윈은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이 전투에 합류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머지않아 “최고로 야만적인 민족들” 중 일부인 “몽골인, 소련의 아시아인, 그밖에 다양한 종족들”이 참전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틀린 말이었다. 볼드윈은 다른 글에서 한국인을 메뚜기 떼의 습격에 비유했고, “갑주를 입은 무리의 야만적인 규율에 맞서기 위해서는 더 현실적인 훈련”을 미군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며칠 뒤 볼드윈은 한국인들에게 삶은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그들 뒤에는 아시아의 유목민들이 서 있다. 그들 앞에는 약탈의 희망이 있다.” 그밖에 무엇이 “그들을 비명 지르게 하는가”, 무엇이 그들의 “광적인 결의”를 설명하는가? 몽골인, 아시아인, 나치, 메뚜기 떼, 야만인, 유목민, 도적. 누군가는 볼드윈이 자신들의 조국을 침공하고 세계 최강의 군대에 맞서 그 조국을 지키는 민족을 묘사하기 위해 편견의 주머니를 탈탈 털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볼드윈은 “신념으로 가득 찬 광신자들의 문제”를 다룰 다른 방법을 찾아냈다.

(라)

19세기 중반, 일본은 페리 제독의 흑선 내항과 불평등 조약 체결이라는 거대한 외부적 충격에 직면한다. 당시 청나라가 아편전쟁으로 무너지는 과정을 목격한 일본의 지식인들은 아시아의 전통적인 가치관만으로는 서구 열강의 식민지 지배를 피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느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탈아입구(脫亞入歐), 즉 '아시아를 벗어나 유럽으로 들어간다'는 사상적 기조다.

이 용어는 1885년 일본의 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가 발표한 서신 형식의 논설인 『탈아론(脫亞論)』에서 처음 등장했다. 그는 일본이 근대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체된 이웃 국가인 조선이나 청나라와의 연대를 포기하고, 서구 문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탈아(脫亞)¹⁾'는 단순히 지리적 이탈이 아니라, 유교적 전통과 구습이라는 아시아적 낙후성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한다. 반면 '입구(入歐)²⁾'는 서구적 합리주의, 과학기술, 그리고 그들의 국제 질서에 편입되어 일본을 서구식 문명국으로 재창조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일본 정부는 탈아입구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 전반에 걸쳐 급격한 생활 양식의 변화를 강제하거나 권장한다. 먼저 불교적 영향으로 오랫동안 금기시되었던 소고기 섭취를 권장했다. 당시 소고기 전골인 규나베를 먹는 것은 개화된 지식인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또 단발령을 통해 전통 상투를 자르고 서구식 헤어스타일을 도입한다. 천황을 비롯한 공무원들도 서구식 제복과 양복을 착용하며 시각적인 근대화를 꾀한다.

(마)

앞부분 줄거리: 1910년대, 영어 교사 형식은 김 장로의 딸 선형과 박 진사의 딸 영채 사이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한다. 영채는 순결을 잃고 자살하러 가는 길에 우연히 일본 유학생인 병욱을 만나 마음을 바꾸고,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기로 한다. 선형과 약혼을 한 형식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길에 병욱과 영채를 만나게 된다. 도중에 그들은 삼랑진 수재민을 위해 자선 음악회를 연다. 음악회가 끝나고 사람들로부터 팔십여 원의 돈을 모은다.

서장은 병욱에게서 그 돈을 받는 듯이 또 한 번 고개를 숙이고 일동을 향하여 그 돈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방법을 취하여 수재 만난 사람을 구제하겠노라 하였다. 일동은 병욱과 다른 두 사람의 성명을 듣고자 하였으나 그네들은 다만 고개를 숙일 뿐이요, 말이 없었다.

이러하는 동안에 집 잃은 사람들은 여전히 어찌할 줄을 모르고 땅바닥에 앉아 있었다. 차차 시장증이 나고 몸이 떨리기 시작하였으나 그네에게는 아무 방책도 없었다. 그네는 다만 되어 가는 대로 되기를 바랄 뿐이다.

1) 亞(아)는 아세아(亞細亞)의 첫 글자로 아시아(Asia)를 의미
2) 歐(구)는 구라파(歐羅巴)의 첫 글자로 유럽(Europe)을 의미

그네는 과연 아무 힘이 없다. 자연의 폭력에 대하여서야 누구라서 능히 저항 하리요마는 그네는 너무도 힘이 없다. 일생에 뼈가 휘도록 애써서 쌓아 놓은 생활의 근거를 하룻밤 비에 다 씻겨 내려 보내고 말리 만큼 그네는 힘이 없다. 그네의 생활의 근거는 마치 모래로 쌓아 놓은 것과 같다. 이제 비가 그치고 물이 나가면 그네는 흩어진 모래를 긁어 모아서 새 생활의 근거를 쌓는다. 마치 개미가 그 가늘고 연약한 발로 땅을 파서 동지를 만드는 것과 같다. 하룻밤 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발발 떠는 그네들이 어찌 보면 가련하기도 하지마는 또 어찌 보면 너무 약하고 어리석어 보인다.

그네의 얼굴을 보건대 무슨 지혜가 있을 것 같지 아니하다. 모두 다 미련해 보이고 무감각해 보인다. 그네는 몇 푼어치 아니 되는 농사한 지식을 가지고 그저 땅을 팔 뿐이다. 이리하여서 몇 해 동안 하느님이 가만히 두면 썩은 벼섬이나 모아 두었다가는 한번 물이 나면 다 씻겨 보내고 만다. 그래서 그네는 영원히 더 부하여짐 없이 점점 더 가난하여진다. 그래서 미련하여진다. 저대로 내어 버려두면 마침내 북해도³⁾의 아이누⁴⁾나 다름없는 종자가 되고 말 것 같다.

저들에게 힘을 주어야 하겠다. 지식을 주어야 하겠다. 그리해서 생활의 근거를 안전하게 하여 주어야 하겠다.

“과학! 과학!”

하고 형식은 여관에 돌아와 앉아서 혼자 부르짖었다. 세 처녀는 형식을 본다.

“조선 사람에게 무엇보다 먼저 과학을 주어야겠어요. 지식을 주어야겠어요.”

하고, 주먹을 불끈 쥐며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으로 거닌다.

“여러분은 오늘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에 세 사람은 어떻게 대답할 줄을 몰랐다. 한참 있다가 병욱이가,

“불쌍하게 생각했지요.”

하고 웃으며,

“그렇지 않아요?”

한다. 오늘 같이 활동하는 동안에 훨씬 친하여졌다.

“그렇지요. 불쌍하지요!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물론 문명이 없는 데 있겠지요. 생활하여 갈 힘이 없는 데 있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저들을... 저들이 아니라 우리들이외다... 저들을 구제할까요?”

하고 형식은 병욱을 본다. 영채와 선형은 형식과 병욱의 얼굴을 번갈아 본다. 병욱은 자신 있는 듯이,

“힘을 주어야지요. 문명을 주어야지요.”

3) 일본 홋카이도

4) 일본 홋카이도와 사할린에 사는 원주민

(바)

미국 코미디언 지미 킴멜은 자기 쇼의 제작진 중 한 명에게 마이크를 들려 로스앤젤레스 길거리로 내보낸 다음 행인들에게 간단한 질문을 하게 했다. ‘오바마케어’와 ‘저렴한 건강보험법’ 중에 어느 쪽을 더 선호하십니까? 압도적 다수가 자기는 오바마케어는 싫지만 저렴한 건강보험법은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들 대부분은 이 두 개가 같은 법안임을 알지 못했다. 결국 명칭이 달라지면 일반적으로 그 지시물도 달라진다. 어떻게 그들은 오바마케어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받게 되었을까?

2008년 당선되고 아직 취임하기 전에, 오바마는 새로운 건강보험법에 어떤 조항을 넣을 때 가장 인기가 있을지를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중 60~80%의 선호도를 기록한 조항은 가입 조건 철폐, 한도액 철폐, 대학생 나이의 자녀도 부모의 피부양자로 가입 가능 등의 익숙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정책의 주요 항목이 되었다. 모든 주요 항목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면 정책 전체에 대한 지지율도 높으리라고 가정했다. 다시 말해 정책의 지지율은 당연히 그 정책 내 세부 항목의 선호도에 달려 있다는 생각이었다.

그 어떤 보수주의자도 이렇게 인기 있는 조항을 공격하지 않았다. 보험 가입 조건이나 한도액을 유지하자고 주장하거나, 대학생 자녀의 피부양자 등록에 반대하는 보수주의 운동도 없었다. 그 대신 보수 세력은 정치가 도덕성의 문제임을 이해하고 도덕을 근거로 삼아 이 제도를 공격하기로 했다. 그들은 ‘자유’와 ‘생명’이라는 두 도덕적 영역을 택했다. ‘자유’와 관련하여 그들은 이 제도가 ‘정부의 (보험 산업) 장악’이라 공격했고, ‘생명’과 관련해서는 이 제도에 ‘사망선고위원회⁵⁾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몇 달에 걸쳐 반복하고 또 반복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는 정부가 (보험을) 장악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고 말할 때마다, 그는 정부의 장악이라는 어구를 사용함으로써 청중의 뇌 속에서 정부의 장악이라는 생각을 활성화하고 결국 보수 세력의 공격을 더 강화해주었다.

또 보수 세력은 ‘저렴한 건강보험법’이라는 명칭을 절대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에 그들은 ‘오바마케어’라는 자기들만의 명칭을 고안해냈다. 그래서 건강보험의 ‘저렴함’에 대한 강조를 증발시키고, 오바마케어를 정부의 장악 및 사망선고위원회와 결부했다. 보수 세력은 2008년 대선에서의 패배를 딛고 이듬해 2009년의 총선에서 상당한 승리를 이루게 된다.

(사)

2018년 여름, 내전을 피하려는 예멘 난민 561명이 제주도에 발을 디뎠을 때도 그랬다. 한국 사회가 보인 반응은 이슬람 혐오와 결합한 GDP 차별주의였다. "예멘 난민 1인당 138만원의 세금이 지급됐다", "그들 대부분은 가짜 난민이다" 같은 '무임

5) 노인 환자의 연명 치료 방법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전문가 위원회

승차론'이 퍼졌다. 일각에선 난민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간주하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날을 세웠다.

또 당시 SNS에는 한 제주 여성이 납치, 혹은 실족사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 난민이 범인이라는 글이 떠돌았다. “전국 범죄율 1위 제주, 30대 여성 및 잇단 여성 번사!”, “예멘 난민 무비자 입국 이대로 방치한 결과?”, “제주여성 납치 실족 어디에서 사라진 난민 7명은 어디에” 등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삽시간에 퍼졌다.

이처럼 우리나라에는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가난한 국가 출신을 혐오하는 이른바 'GDP 차별주의'가 존재한다. 『지금, 또 혐오하셨네요』 작가 박민영은 “외국인들은 GDP 순서대로 서열화된다. 영미권 백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호의를 받으며 산다. 정책적으로 비자도 쉽게 취득하며 체류 기간도 길다. 영주권 취득도 쉽고, 직업 선택과 직장 이전의 자유도 누린다. 그러나 이주 노동자들은 이런 대우를 받지 못한다.” 라고 쓰며 예멘 난민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을 꼬집었다.

예멘 난민에 대한 비방이 무색하게 대부분의 소문들은 사실과 거리가 멀었다. 난민 심사를 받는 최장 6개월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는 있었다. 하지만 모든 난민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었다. 가구원에 따라 금액도 달랐다. 1인 가구엔 43만2900원, 5인 가구일 때만 138만6900원이 지급됐다. 예멘 난민 B씨(30)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난민은 거의 없었다"면서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해야 했다.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요리도 하고, 무를 세척하는 아르바이트도 했다"고 밝혔다.

8년이 지난 지금 예멘 난민들은 제주를 '제2의 고향'으로 여기며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대다수는 제주에 남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으며, 제주도의 관광 산업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